

e-CNY 사용 활성화 제약에 대한 홍콩 금융시장의 견해

- 중국인민은행은 2019년 CBDC인 e-CNY 시범 사용을 시작한 이후 시범 사용지역을 확대*하는 등 e-CNY 사용 활성화를 도모
 - * 3차례(2019, 2020, 2022년)에 걸쳐 시범사용 지역을 26개 대도시로 확대하였으며 2023년 2월부터는 홍콩에서도 e-CNY 시범사업을 시작
- 지자체, 공공기관 등에서 e-CNY로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배포하는 소비바우처, 춘절 홍바오(세뱃돈과 유사)를 e-CNY 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사용확대 방안을 추진
- e-CNY 사용지역이 확대되는 데다 지방정부의 독려 등으로 e-CNY 거래규모*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사용 활성화는 다소 제약되는 것으로 평가
 - * e-CNY 누적거래규모 : 2021년말 880억 위안 → 2022년 8월말 1,000억위안
- 특히 홍콩의 경우 금년초 e-CNY 사용 개시 이후 이용자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언
- 이용자 입장에서 기존 페이시스템(위챗페이, 알리페이)이 매우 편리하고 익숙한 데다 e-CNY의 익명성 보장이 우려되는 점 등이 e-CNY 거래 활성화의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
 -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편리한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동 시스템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e-CNY가 이를 대체할만한 뚜렷한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
 - 또한 중국 당국이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의 신뢰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
- 주요국 CBDC중 비교적 빠르게 도입이 추진된 e-CNY의 사례를 감안할 때 향후 CBDC 도입시 익명성 보장에 대한 신뢰성 확보, 이용자의 수용성 제고 등 여러 가지 선결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

작성자 : 홍콩주재원 김민규 차장